“호우 방류 조절 위해 수량통제 자문위 만들자”

장성군, 농어촌공사에 장성호 방류량·수문 개방 시기 조정기구 구성 제안

장성군이 농어촌공사에 집중호우시 효과적인 댐 방류를 위해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댐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장성호를 관리 중인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군 공무원, 지역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다.

특히 많은 비가 예보될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장성호 방류량과 방류시기를 효과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장성지역도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장성군 집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공공시설 96개소, 사유시설 125개소, 주택 98채가 침수됐다. 피해액 규모는 215억원에 달한다. 이재민은 16가구, 28명이 발생했으며, 현재 12가구 21명이 응급복구를 통해 귀가했다.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장성읍 단광리 주민 1명이 호우로 유실된 지반을 복구를 하던 중 상해를 입어 목숨을 잃었다.

장성군은 홍길동체육관과 지역 경로당을 활용해 임시대피소 8곳을 운영하고, 구호물품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했다.

지난 주말에는 전체 공무원이 읍·면 지역 수해 현장으로 달려가 시설과 침수주택 복구를 도왔다. 수해 복구 현장에는 굴삭기 37대와 덤프트럭 6대가 투입된 가운데 인근 군부대에서도 병력을 지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12일 농어촌공사에 집중호우시 효과적인 방류를 위해 ‘장성호 수량통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진은 장성호 전경. 〈장성군 제공〉

장흥군, 해당산단 화력발전사업 계약 해지

사업 신뢰 없고 지역민·입주기업 반대
화력발전 사업자 측 “법적 대응하겠다”

장흥군이 해당산업단지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에 대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또 이 회사의 해당산단 입주계약도 해지 처분했다. 사실상 해당산단 화력발전사업을 취소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 사업자 측은 “부당하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12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해당산단에 화력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장흥그린에너지가 신청한 발전소 건축허가를 지난 3일 반려했다. 또 장흥그린에너지와 체결한 입주계약도 해지 처분했다.

장흥그린에너지는 해당산단 내 3만9461㎡(1만1930평) 부지에 1600억원을 투자해 29.9MW 규모의 화력발전소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3월 산업자원부와 전남도로부터 전기발전사업과 대기배출 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5월 장흥군과는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5년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장흥군은 최근 입주계약 해지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장흥군은 “폐목재 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문제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고, 산단 입주기업과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강경하다”고 입주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장흥군은 또 그동안 사업자가 3번이나 바뀌면서 양수 인가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당초 30MW의 발전 규모를 29.9MW로 축소하는 등 사업계획 적정성에서도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2월 신청한 건축허가 역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흥군과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건축허가 조건 불이행 등 절차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흥그린에너지는 “그동안 투자 유치와 펀드 조성을 위해 장흥군이 협력해오다 행정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내린 것은 수소발전 유치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부적정 행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 행정처분 집행 정지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옐로우시티 장성 이끌 청년위원 모십니다”

장성군 거주 만 19~39세 30명 모집

장성군은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과 군정 발전을 위한 소통창구 역할을 할 ‘제2기 장성군 청년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기 청년협의체는 9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시기별 정기회, 임시회는 물론 청년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 워크숍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위원들은 지역 청년과의 소통·의견 수렴, 청년 문제의 발굴·조사와 개선방안 모색, 청년 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등을 제시한다.

청년협의체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반드시 장성군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문제와 개선 방안에 관심을 두고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이 오는 19일까지 ‘제2기 장성군 청년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2018년 제1기 청년협의체 위촉식. 〈장성군 제공〉

신청 방법은 오는 19일까지 장성군 총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총 3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구 소멸 위험에 적극 대응 중인 장성군은 2020년 인구정책 목표를 ‘어제보다 더 젊은 옐로우시티 장성 건설’로 정하고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청년자립·주거 지원, 청년 일자리 등 13개 사업에 9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올해는 청년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청년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된 뜻 깊은 해”라면서 “새롭게 구성될 청년협의체 위원들의 목소리를 장성군 청년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헌집 고쳐 새집 선물”

LG화학 나주공장, 3호 집수리

LG화학 나주공장이 어려운 이웃에게 세 번째 희망의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LG화학 나주공장은 지난 10일 나주시 송월동 한모 씨의 주택에서 ‘나사랑 희망하우스 3호’ 현판식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된 ‘나(羅)사랑 희망하우스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어려운 이웃의 주택을 개·보수하는 LG화학 나주공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나주 원도심에서 매년 2가구씩을 선정해 전기·도배·장판·가구 등을 교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나주공장 임직원들이 모금한 ‘트윈엔젤기금’과 회사가 마련한 ‘매칭그랜트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사랑 희망하우스’는 가구당 500만원씩 연간 2가구를 선정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입주민 한모씨는 “천장이 내려앉아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았는데 LG화학 덕분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해 했다.

이건주 LG화학 나주공장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나사랑 희망하우스’는 대상자와 지원자 모두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나주 원도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사랑 희망하우스 지원을 100호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수원자원봉사센터 화순에 수해 생필품 후원

화순군은 경기도 수원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임숙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화순 이재민들에게 전해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화순군은 이 생필품을 화순읍, 동복면, 동면, 한천면, 사평면의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33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멀리 수원에서 생필품을 후원해 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재민들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1명이 실종되고 주택 30여동이 침수됐다. 또 358농가의 벼와 과수 247ha가 침수됐으며 주요 도로·다리·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18곳이 침수 또는 유실됐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